

“칼로리 낮추고 건강 올렸다”...장흥 표고음료 재출시



1999년 최초로 개발되어 연간 60만켤 이상 꾸준히 판매
표고 하이볼·표고 에이드 등 젊은 소비자 겨냥 제품 개발
김성 군수 “장흥 농특산물 활용 밀키트 상품 개발하겠다”

장흥군 대표 특산물인 원목표고버섯을 활용
해 만든 ‘표고버섯 음료’가 재출시됐다.
장흥표고음료는 1999년 최초로 개발되어
연간 60만 켤 이상 꾸준히 판매된 지역 대표
음료다.
표고음료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탄탄

하게 자리매김했으나, 지난 2021년 생산 공
장의 화재로 판매가 중단됐다.
올해 2월, 장흥군은 정남진장흥농협, 다인
음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재생산을 협
의에 돌입했다.
이어 장흥군과 전문가가 참여한 시음회 행

사를 추진하는 등 기존의 상품보다 더 나은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기존 제품을 보완한 결과, 이전보다 칼로
리를 낮춘 새로운 버전의 표고음료가 출시됐
다.
새로운 표고음료는 이달 12일부터 정남진
장흥농협 하나로마트, 관내 마트, 특산물 판
매장(토요시장) 등에서 판매한다.
장흥군과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9일 표
고음료 출시를 기념하여 직원 무료 시음 행
사를 진행했다.
지역 식당 및 공급업체에 무상으로 시음용
표고음료를 제공하는 등 판촉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MZ세대 ‘하이볼’ 열풍에 힘입어 쉽고 재밌
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표고 하이볼, 표고
에이드 밀키트를 한정수량 제작할 계획이다.
이는 다가오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7. 29.
~ 8. 6), 통합의학박람회(9. 8. ~ 9. 14.)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을 대표하는 지역특
화상품 표고음료를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
며, “앞으로 장흥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밀키트 상품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30일부터 대규모 수국 축제 열린다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본격적인 여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6월, 강
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3 강진 수국길 축
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속으로’를 슬로건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
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현재 강진은 농가 20개소가 5만8,251㎡ 규
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7%에 달한다. 전남도 내에서도 전
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경
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
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산 절화용 수국
은 품질이 우수해 지난 2011년부터 일본 수출
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일본 전
체 수출량의 100%를 강진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 시범 수출을 진행하면서
수출 누적 70만 본을 달성했다.



이번 수국길 축제 현장에서는 이처럼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는 각각
다양한 수국 관련 굿즈를 만들 수 있어 아이들
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
로 예상된다. 축제장 내 저수지에는 짜릿한 여
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20여 대 가량의 수상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이며, 여름 대표 수생
식물 연꽃단지도 선보인다.
또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할 것을 고려해, V랜드 물놀이장을
축제 기간에 맞춰 한시 개장할 방침이다.
또한 강한 햇살에 대비해 50m 길이의 일명
‘오로라 타프’도 갖췄다. 일반적인 그늘막 대신
빛과 바람에 따라 오로라나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색 포토존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고금면에 생활체육공원 준공

축구장·농구장·족구장·놀이시설·산책로 등 갖춰



완도군은 지난 9일 고금면 생활체육공원(면
적 619번지)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완도
군의회 의장, 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최경철
완도군체육회장,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장, 면
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20,052㎡ 면적에 친환경 축구장, 농구장, 족구
장,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갖췄다.
특히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
전성(Safety), 환경성(Environment), 쾌적성
(Amenity) 등 ‘S·E·A’를 갖춘 체육시설로 조
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한편 고금면에는 지난해 3월 파크골프장에
이어 생활체육공원까지 조성돼 면민들이 실내
외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고금면은 지리적 장점과 인
근에 해양치유센터 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건립되면 전지훈련 및 관광객이 많
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군
민들이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은 물론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
해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힘쓰겠
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의 맛 알린다...향토 음식점 13곳 선정

홍보 지정판 제작·SNS 홍보 등 혜택

진도군이 향토성이 있고 맛있는 ‘향토 음식
점’ 13곳을 선정했다.
향토 음식점은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
산물을 사용해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판
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올해 처음 선정했다.
진도군 향토 음식점은 심의위원회에서 관광
객들에게 진도의 향토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
을 홍보해 음식 관광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고 지난 8일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판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또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 식당의 사후관
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향
토 음식점 선정을 통해 지역 향토·특색 음식점
을 발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
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향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향토 음식점은 가운전복(전복해



신탕), 광주횟집(장어탕), 궁전(소갈비뽕북국),
신호등회관(양념계장), 윤림뜨락(표고들깨갈
국수), 제주촌갈비(울금삼겹살), 좋은자리(간
재미무침), 진도밤바다(간장계장코스), 진도아
리랑화센터(아리랑밥상), 한끄니(낙지볶음),
한우곰탕(듬뿍이 갈비탕), 회타운(생선구이보
듬), 횃집서우담(회정식)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